

한국야구 빛낸 청소년대표팀 광주·전남 소속 감독·선수들



<허세환 감독> <양현종> <임익준> <김강> <전준수> <김남석> <김선빈>

한국, 6년만에 정상 행가래

■ 세계청소년야구선수권

한국이 제22회 세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에서 야구 종주국 미국의 꺾고 6년 만에 감격의 우승컵을 품에 안았다.

광주일보 허세환 감독이 이끈 한국청소년 야구 대표팀은 28일(한국시간) 쿠바의 상티 스피리투스 후엘가구장에서 열린 대회 결승에서 광주 동성고 임익준의 끝내기 안타로 미국을 4-3으로 누르고 정상에 올랐다.

이번 대회에는 한국 대표선수 18명 중 양현종, 임익준(이상 광주 동성고), 김강, 전준수, 김남석(이상 광주일고), 김선빈(화순고) 등 광주·전남에서 6명이 출전, 호남야구의 명성을 전 세계에 알렸다.

한국의 대회 우승은 선동열(삼성 감독)과 김건우(MBC-ESPN해설위원)를 앞세운 81년 제1회 대회와 이승엽(요미우리)과 김선우(신시내티)가 맹활약한 94년, 추신수(클리블랜드)가 원맨쇼를 펼친 2000년 대회에 이어 통산 4번째로 6년만이다.

한국은 이날 3-3으로 맞선 9회말 마지막 공격에서 선두타자 김남형(인천고)이 몰 맞는 공으로 출루한 뒤 2사 후 4번 타자 이두환(장충고)도 고의볼넷을 얻어 1, 2루의 찬스를 잡았다.

다음 타자는 8회부터 대타로 나온 임익준. 2-3으로 뒤진 8회 볼넷을 골라 동점 득점을 올린 '럭키 보이' 임익준은 볼카운트 1-2에서 미국 다섯 번째 투수 팀 엘더슨의 공을 받아쳤고, 타구는 상대 유격수 앞에서 한 차례 바운드 뒤 살짝 킴 넘겼다. 3-3 균형을 깨는 끝내기 안타였다.

마운드에선 에이스 김광현의 활약이 빛났다.

김광현은 1회 구원등판해 3이닝을 막아낸 뒤 외야수로 옮겨다가 9회초 무사 1루 위기 상황에서 재등판해 총 4이닝을 3안타 5탈삼진 2실점으로 막고 승리의 발판을 닦았다.

예선리그 최종전 네덜란드전부터 8강전 대만전, 4강전 캐나다전에 이어 결승전까지 4경기 연속 승리투수가 된 김광현은 대회 최우수선수(MVP)로 뽑히는 영예를 누렸다.

허세환 감독은 "평생 잊지 못할 진땀 나는 승부였다. 그라운드에서 쓰러지더라도 끝까지 싸우겠다는 투지가 승리를 이끌었다"고 우승 소감을 말했다.

임익준 끝내기 안타...미국 4-3 제압 통산 4번째 우승...투수 김광현 MVP



28일 쿠바의 상티 스피리투스 후엘가 구장에서 열린 제22회 세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한국팀 선수들이 허세환 감독을 행가래 치고 있다.

지 싸우겠다는 투지가 승리를 이끌었다"고 우승 소감을 말했다.

한편 양현종과 이두환은 각각 원투수, 1루수 부문 올스타로 뽑혔다.

양현종은 예선리그 성적만으로 가린 개인 타이틀의 방어율 부문 1위(9.2이닝 무실점)도 차지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35세 박장순 노장투혼 선두

Star Tour KLPGA 첫날 5언더파...신지에 1타차 공동 2위

박장순(35)이 예상을 깨고 한국여자프로골프 KB국민은행스타투어 3차대회 첫날 단독 선두에 나섰다.

박장순은 28일 함평의 4계절 양산지 골프장 함평다이너스티골프장(파72·6천297야드)에서 열린 대회 1라운드에서 버디 7개와 보기 2개로 5언더파 67타를 쳐 공동 2위 그룹을 1타차로 따돌리고 리더보드 상단에 이름을 올렸다.

프로 6년차로 30대 중반의 나이지만 아직 우승이 없는 박장순은 그러나 생애 첫 우승의 가능성을 잡지기는 아직은 이르다.

우승 가능성이 높은 스무살 안팎의 젊은 신예들이 1타차 공동 2위에 무더기로 포진해 있기 때문.

특히 상금 랭킹 1위를 질주하고 있는 함평골프 3학년 '슈퍼루키' 신지에(18·하이마트)는 보기 없이 버디만 4개를 속아내는 깔끔한 플레이로 4언더파 68타를 치며 공동 2위 그룹에 포진, 시즌 3승을 노리고 있다.

신지에에 "오늘 전체적으로 샷이 잘 되지 않았다"며 "내일은 함평골프고 전교생이 응원을 나와준다고 해 힘을 내서 선두를 탈환하겠다"고 말했다.

시즌 첫 우승에 목마른 최나연(19·SK텔레콤)도 보기 없이 버디만 4개를 뽑아내 1타차로 박장순을 뒤쫓았다.

또 작년 로드랜드매경여자오픈에서 깜짝 우승을 차지한 이가나(19·르꼬끄골프)와

'루키' 윤슬아(20), 우지연(19·하이마트), 프로 3년차인 이보리(23)와 박하나(23)도 공동 2위 그룹에 합류했다.

나다예(19) 등 4명이 3언더파 69타로 공동 9위를 형성했고 신지에와 상금왕 경쟁을 벌이고 있는 박희영(19·이수건설)과 1차대회 우승자인 안선주(19·하이마트), 송보배(20·슈퍼어), 홍란(20·이수건설), 최우리(21·LIG-김영주골프) 등이 공동 13위에 올라 선두권 진입을 넘겼다.

2차대회 우승자인 문수영(22)은 이날 오전 경기장에 승용차를 타고 오다가 추돌 사고를 크게 당하고도 출전을 강행했으나 4오버파 76타로 부진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이주은이 28일 함평다이너스티CC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 2006KB국민은행스타투어 3차대회 1라운드 15번홀에서 벅커 샷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무명 최현 6언더 '깜짝 선두'

PGA 골드레이크 오픈 1R

호주프로골프 출신의 무명 최현(30)이 절정의 퍼팅 감각을 내세워 한국프로골프 SBS코리아투어 중흥S-클래식 골드레이크 오픈 첫날 깜짝 선두에 나섰다.

최현은 28일 나주시 골드레이크골프장(파72·7천61야드)에서 열린 대회 1라운드에서 버디 7개와 보기 1개를 묶어 6언더파 66타를 쳤다.

7명의 2위 그룹을 2타차로 제친 최현은 한국프로골프 무대에서 데뷔한 지 2년 만

에 첫 선두에 이름을 올렸다.

최현은 8살 때 호주로 이민을 떠났다가 지난 2000년 '코리언 드림'을 꿈꾸며 한국으로 복귀한 이색 경력자.

특히 최현은 호주에서 고교생 때 뒤늦게 골프를 시작했지만 19세의 어린 나이에 호주프로골프투어 프로 선수 자격증을 따낸 늦깎이 골퍼다.

평소 퍼팅에 자신감을 보이는 최현은 중흥골드레이크골프장의 딱딱하고 커다란 굴곡으로 쉽지 않은 그린에서 특유의 퍼팅감을 자랑했다.

최현은 8번홀(파4) 11m, 11번홀(파3) 8

m, 그리고 18번홀(파5)에서는 무려 15m 짜리 버디 퍼트를 성공시키는 등 12개 홀에서 1차례 퍼트로 마무리 짓는 절정의 퍼팅 감을 보였다.

3년 만에 상금왕 탈환을 노리는 신용진(42·LG패션)과 지난해 상금왕 최광수(46·동아제약), 그리고 통산 3승을 올린 정준(35) 등 관록파들이 4언더파 68타씩을 쳐 공동2위 그룹에 합류했다.

광주출신으로 양강(姜)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강지만(30·동아회원권)과 강경남(23·삼화저축은행)은 고향에서 라운딩에 부담을 느꼈는지 부진을 면치 못했다. 강지만은 4오버파 76타라는 부진한 성적표로 첫 탈락을 걱정하게 됐고, 강경남은 1언더파로 공동 25위에 머물렀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그레이, 왜 그래?”

“그레이 너 마저...” 두산과 피말리는 4위 다툼을 벌이고 있는 KIA가 예상치 못한 악재를 만났다.

올 시즌 유일한 '에이스'로 활약해온 세스 그레이(31·KIA·사진)가 피로누적에 따른 오른쪽 팔꿈치 주변의 근육통을 호소, 28일 예정됐던 광주 한화전 선발 등판을 연기했고 주말 롯데전 출전도 불투명한 상태다.

서정환 KIA 감독은 이날 "피로누적에 따른 근육통이 온 듯하다. 심각한 않지만 최악의 경우 이번 주말(롯데 4연전)에도 출장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에서 선수 시절 앓았던 팔꿈치 쪽에 무

오른쪽 팔꿈치 통증 호소 주말 롯데전 출장 불투명 KIA, 4강행 차질 우려

리가 온 것 같다"고 밝혔다.

그레이는 지난 22일 두산과의 홈경기에서 선발 등판한 뒤 "어깨에 통증이 온다"며 7회에 스스로 마운드를 내려왔다.

이후 집중적인 물리치료를 받고 팔꿈치의 근육통은 상당히 호전됐으나, 아직 전력회전을 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게 서 감독의 말이다.

그레이의 시즌 막판 피로 누적은 이미 예견됐던 일이었기에 서 감독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있다.

그레이는 올 시즌 등판 일정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개근 출장하는 성실함으로 감

칠민, 김진우 등 선발진들이 부상으로 비운 마운드를 지켜냈고, KIA의 4강행을 잇는 가고 역할을 해왔다.

시즌 중 보여준 활약도 놀랍다. 그레이는 모두 29경기에 등판, 188이닝 동안 탈삼진을 무려 164개(단독 2위)나 잡아내며 14승을 거뒀고 다승 부문도 공동 4위를 기록중이다.

이닝 수도 8개 구단 투수 가운데 3번째로 많이 소화했고 경기당 평균 투구수는 무려 100개에 이른다. 유일한 '에이스' 투수로서 쉬고 싶어도 쉴 시간이 없었던 것이다.

결국 시즌 내내 이어진 강행군은 여유부림이 없는 중요 길목에서 그레이를 주저앉게 했다. '일투런치' 중 하나인 김진우의 들쭉날쭉한 컨디션에 그레이의 부상마저 겹친 KIA로선 그야말로 사면초가(四面楚歌)에 몰린 꼴이다.

반면 경쟁 상대인 두산은 랜들-리오스-이예천 등 탄탄한 선발 로테이션을 앞세워 KIA의 턱밑까지 추격했고, 어느 누구도 4강행 마지막 티켓의 주인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가을리그' 내달 8일부터

KBO 포스트시즌 일정 확정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이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다음 달 8일부터 시작된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7일 올해 준플레이오프와 플레이오프, 한국시리즈 일정을 확정해 발표했다.

비로 순연전 정규시즌 두산-롯데(잠실)전과 한화-롯데(대전)전이 각각 다음 달 4일과 5일로 편성된 가운데 추석(6일)과 7일은 각각 휴식일로 정하고 정규시즌 3~4위팀이 맞붙는 준플레이오프(준PO)는 10월8일 막을 올려 3전2선승제로 치러진다.

비로 페넌트레이스를 10월8일 이후 마치고 포스트시즌 개시일 사이에 최소 하루의 이동일을 편성하고 준PO와 상관 없는 경기가 재편성되면 포스트시즌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준PO는 종전 5전3선승제에서 3전2선승제로 환원됐고 1, 3차전은 승률 3위팀 홈구장에서, 2차전은 승률 4위팀 홈구장에서 각각 열린다.

또 준PO 승리팀과 정규시즌 2위 팀이 격돌하는 플레이오프(PO)는 10월13일부터 5전3선승제로 벌어진다.

1, 2, 5차전은 승률 2위팀 홈구장, 3, 4차전은 준PO 승리팀 구장에서 열린다.

또 대망의 한국시리즈는 10월21일부터 7전4선승제로 치러지는데 정규시즌 1위팀이 1, 2, 6, 7차전을 치를 수 있는 프리미엄을 갖는다.

다만 한국시리즈가 지방팀간 경기일 때는 1, 2차전은 정규리그 1위팀 홈구장, 3, 4차전은 PO 승리팀 홈구장에서 펼쳐지고 5, 6, 7차전은 잠실구장에서 열린다.

경기 시작 시간은 평일은 오후 6시, 토요일과 일요일은 오후 2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